韓 · 日관계 개선, 한국불자들이 앞장서다

일본 교토 이총 추모봉행위 4월 30일 진혼재 봉행

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붓다봉사단 등 100여 불자 모여 불교위령재 열어
일본 스님 · 지식인들 대거 참여해 "진정한 관계 개선, 참회서 시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는 4월 30

"낯선 땅에 묻혀 수십만 귀를 열어 두어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한 서린 애혼 영가이시여! 여기 한국의 후손들이 진혼재를 올리오니 애절한 한을 잠시 내려 놓으소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총재 목탁)는 4월 30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귀무덤은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12만 6000여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이를 묻어놓은 곳을 말한다. 한국 단체가 2007년부터 위령제를 열고 있으며,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이 중심이 된 '일본 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혼재를 봉행했다.

이날 진혼재에는 봉행위원회 총재 목탁 스님, 회장 혜정 스님, 봉행위원장 청명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불교협회장을 역임한 불광사파 서덕사 최고고문 오타니 기하쿠 스님, 주지 샤쿠 하쿠신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자 및 재일교포들과 아마키 나오토 교토평화모임 대표(前 레바논 대사), 나까노 요우이치 교토시의원, 민단신문 · 중외일보 등 일본언론기관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혼재는 범패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천도의식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기하쿠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참회와 축원을 올렸으며, 아마키 나오토 대표의 참회발언 등이 이어졌다.

〈귀무덤〉 책을 펴낸 아마키 나오토 대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총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이총 추모 진혼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육법공양을 올리고 애도송을 합송했으며, 한국에서 준비해간 추모의 글을 낭독하여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재 목탁 스님은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라며 "국제불교지도자 스님들이 앞장서고 한국불교계의 각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자리이타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매년 4회씩 10년간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한광수 신도회장 취임



조계종17교구 금산사 제5대 신도회장의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금산사 신도회는 5월 7일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금산사 신도회 제5대 한광수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주지 우림 스님,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한광수 신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광수 신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된 것은 전북불교의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라는 책임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 탑사붓다봉사단 문화공연

백용성부대 방문해 장병 위문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안무주지역의 방위에 힘쓰고 있는 7733부대를 방문해 장병 위문 문화공연을 펼쳤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안무주지역의 방위에 힘쓰고 있는 7733부대(대대장 원상석)를 방문해 장병위문 문화공연을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백용성부대 장병위문 문화공연은 지역방위활동과 방역활동등 무료한 군생활로 인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진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진장재가복지센터(대표 최주연)는 장병들을 위해 냉커피와 냉음료를 제공했고 태고떡볶이봉사단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피자, 치킨 등 푸짐한 간식을 제공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원상석 부대장님과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장병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수호하고 있어 고향의 부모님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일부러 서울에서 찾아주신 공연팀의 공연과 봉사단에서 준비한 간식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라며 잠시나마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상석 부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대안전과 지역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진성 스님과 붓다봉사단, 아메리칸 드림 홀딩스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올 봉축표어인 '마음엔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주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 바라며 부대장병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석 부대장은 문화공연 준비와 장병들의 간식을 마련해준 아메리칸 드림 홀딩스 서동하 대표와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 이재현 단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은 전문MC 김현경의 사회로 걸그룹 메모리즈, 프롬의 공연, 트로트 그룹 누나 둘의 공연으로 행사에 참석한 장병들을 열광케 했다. 이어 박보성 씨의 색소폰 공연이 이어졌으며 천지사 현진 스님이 특별공연을 펼쳤다.

또 각 중대를 대표한 장병들이 다양한 끼를 발휘하는 장기자랑이 펼쳐졌고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진안사랑 상품권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안사암聯 '군민위안 봉축법회'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함안군민들을 위한 봉축법회가 봉행됐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달전사 주지)는 5월 6일 함안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박문자 바웃다합창단장의 사회와 수암 스님 집전으로 봉행된 이날 봉축연합법회는 화현지음 가야금 연주, 한국무용 원향지무, 고고장구가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는 제1부 괘불이운 2부 봉축법요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괘불이운의식은 함안수륙재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수바라 작법으로 봉행됐으며 2부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봉행사, 축사, 축가, 헌공,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산회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함안불교사암연합회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전에 이르기를 진리를 보는자, 나를 보는 것이고 형상이나 목소리로 볼 수 없다. 진리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부처님은 절대자인 위대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자유자재의 무한한 존재이며 진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법력이 깃든 등불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조용찬 신도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한다" 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춘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함안군민위안봉축법회는 함안군사암 연합회장 원명 스님, 봉불사 지정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용정사 동준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흥복사 현법 스님, 백암사 법성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조근제 군수, 조용찬 연합회 신도회장, 지희선 공무원불자회장 등 지역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하동 칠불사, 칠불괘불탱화 점안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동서 화합과 남북통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위한 칠불사의 발원이 담긴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5월 7일 칠불사 선다원 앞 광장에서 열린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는 명종 5타, 도량결계, 불사 경과보고 및 괘불소개, 헌음1, 점안의식, 헌음2, 괘불제막, 헌화와 칠불헌공, 축원, 육법공양, 축사, 법어, 감사패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제일선원 하동 칠불사가 동서 화합과 남북통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위한 칠불사의 발원이 담긴 칠불괘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은사스님이신 제월당 통광 스님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전소된 칠불사를 복원하시면서 내신 원력을 이제야 실현하게 됐다"며 "쌍계사 방장인 고산 혜원 대선사가 열반 전 불화의 구체적인 구도를 잡아주셨고 직접 화공까지 소개해주셔서 3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하게 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도응 스님은 이어 "지속적인 괘불재를 통해 칠불사가 일곱 부처님이 탄생한 도량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국제일선원이라는 선수행 도량의 위상을 확립하고 칠불문화제를 지방 문화 행사에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칠불괘불의 점안식은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진주 보광사 주지 현도 스님이 집전해 불교전통방식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칠불의 선맥과 고산 대종사님의 계맥과 통광 스님의 유지를 선양하고자 하는 도응 스님의 발심원력과 칠불 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가야불교의 찬란한 모습을 담은 칠불탱화 불사의 원만 회향으로 이어졌다"며 "도응 스님의 무량 원력은 일곱 부처님의 지혜로 승화되고 선원의 선풍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우담종문회 다례봉재 및 수계산림

제4대 이사장에 불곡사 서암 도홍 스님 취임



사단법인 우담종문회(회장 도홍)는 5월 4일 창원 불곡사 관음전에서 제162주년 조사단 영사 다례봉재 법회와 48회 합동수계산림, 제4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근파 스님, 선파 스님, 능산 스님, 법산 스님, 묵암 스님, 거산 스님, 고암 스님, 옥산 스님, 원종 스님, 만산 스님, 영산 스님, 송운 스님, 법정 스님 등 문도스님과 이성품화 불자 및 보리수합창단이 참석했다.

162주기 조사단 다례봉재는 삼귀의례에 이어 반야심경 봉독, 헌시낭독, 종사영반, 추모곡 합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8회 합동수계산림법회는 전계아사리 능산 스님, 갈마아사리 근파 스님, 교수아사리 선파 스님을 증명법사로 사미 법안 스님과 사미니 수진 스님이 사미십계를 수지했다. 이어진 구조계 수계법회에서는 보운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은사스님인 능산 스님으로부터 수계첩을 받았다.

이어 우담종문회 원로의장 근파 스님은 만장일치로 추대된 도홍 스님에게 제4대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사장 도홍 스님은 "재취임하면서 책임이 무겁다. 문도의 화합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품과 문헌등을 보관 전시할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능산 스님과 도홍 스님은 대한불교법화종 원로 근파스님으로부터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은암문화재단 박청용 작가 초대전

'기도하는 사람들' 주제로 열려

은암문화재단(이사장 신공, 김해 동림선원 주지)은 4월 29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해 동림선원 내 은암갤러리에서 박청용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 박청용작가 초대전은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박청용 작가는 염원의 마음, 마음의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들'로 담아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단순화된 형태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박청용 작가는 작가 스스로의 내면 탐구와 삶 속, 유 · 무형의 모습들을 붓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은암문화재단은 4월 29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해 동림선원 내 은암갤러리에서 박청용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명상하는 사람들' '하늘바다' 등 박청용 작가의 40여 작품은 은암禪문화센터 1층 은암갤러리 및 연화홀과 2층 설법전, 3층 명상실 및 선차실에 전시된다.

은암갤러리에서 열린 오픈식에는 박청용 작가, 신공 스님, 쿠무다 주석 스님, 조력장인 김우영 씨와 시민들이 함께했다.

주석 스님은 축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좋은 작품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행복의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며 "이 작품세계를 통해 불자님들도 일반인들도 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었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는 40여 작품은 개인 구입이 가능하며 작품 판매수익의 일부는 은암문화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